

체육인 복지 향상 '맞손'

전북체육회-전은, 협약 체결
전용 복지카드 출시키로

전북체육회가 전북은행과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5일 양 기관은 전북체육회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신용카드 업무 제휴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다양한 금융 상품 공유 및 부대업무 등과 관련 적극 협조하게 된다. 또한 전북 체육인들의 체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협력하게 된다. 이른바 '체육인 맞춤형 복지카드'로 제작되는 신용카드는 각종 기본 혜택 이외에도 우대 혜택(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또는 희망(요청) 업종이 있을 경우 제휴 가맹점을 적극 확장하며, 체육회 임직원들을 위한 온라인 복지카드 운영 할 예정이다. 이몽호 부행장은 "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항토은행으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북체육회와 전북은행은 25일 전북체육회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체육인 복지를 위해 적극 협력해 준 전북은행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체육으로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체육회는 체육인 복지와 지역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9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도 체육회관에 설치했다. /장은성 기자

대학축구 U리그 오늘 개막

역대 최대 85팀 참가

대학축구 최강을 가리는 2021년 U리그가 26일 개막한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대학스포츠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U리그에는 신규 5개 대학을 비롯해 역대 최대인 85팀이 참가한다. 10월까지 진행되는 권역리그에서 성적이 우수한 32팀이 11월 왕중왕전을 통해 챔피언을 정한다. 권역리그는 11개 그룹으로 나뉘어 1개 권역당 7팀 또는 8팀이 묶여 있다. 경기는 대학 운동장이나 지자체 운동장에서 개최되고, 홈팀으로 지정된 대학에서 경기 운영을 맡는다. 재학생들의 관전과 응원이 쉽도록 주로 금요일 오후에 경기가 치러진다. 안익수 감독이 이끄는 지난해 우승팀 선문대는 하석주 감독의 이주대를 비롯해 중앙대, 단국대, 홍익대 등과 함께 5권역에 속해 있다.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한 안효연 감독의 동국대는 송실대, 경희대, 명지대 등 만만치 않은 팀들과 2권역에서 대결한다. 또 지난해 대학연맹 대회 2관왕인 연세대는 이장관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강호 용인대 외에도 성균관대 등과 4권역에서 맞붙는다. 신연호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맞이한 고려대는 3권역에서 한양대, 수원대 등과 왕중왕전 진출을 다툰다. U리그는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공부하는 선수 육성, 캠퍼스 내 축구부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출범했다. 경희대가 초대 챔피언에 오른 이후 연세대와 고려대, 용인대가 두 번씩 트로피를 들어 올려



공동 최다 우승팀이다. U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을 바탕으로 프로 무대에서 꽃을 피운 선수들도 많다. 대회 MVP를 수상했던 심동운(홍익대, 2011년), 김도혁(연세대, 2012년)은 K리그의 중심 선수가 됐고, 2013년 MVP 손준호(영남대)는 지난해 K리그에서도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1~2회 대회 연속 득점왕인 고경민(당시 한양대)은 현재 경남FC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2017년 득점왕 이현식(용인대)은 강원 FC 소속이던 작년에 대표팀에 발탁되기도 했다. /뉴시스

김영병 의심되면 '1339' 로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지난 24일 오후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도드람 V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IBK기업은행과 흥국생명 경기, 흥국생명 김연경이 경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김연경 '부상 투혼'에 V리그 시청률 올라

SBS스포츠 중계 흥국생명-IBK기업은행
플레이오프 3차전 평균 시청률 2,564%

김연경(흥국생명)의 '부상 투혼'이 V리그 시청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AGB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4일 SBS스포츠가 중계한 흥국생명 IBK기업은행의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3차전 평균 시청률이 2,564%(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조사됐다. 2018-2019시즌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챔피언결정전 3차전 2,088%를 뛰어넘는 역대 여자부 포스트시즌 최고 시청률이다. 케이블방송 스포츠중계는 1%만 넘어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감안하면 무척 높은 수치다.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오후 8시18분께 순간 시청률은 무려 3,74%나 나왔다. SBS스포츠는 "V-리그 출범 이후 역대 최고"라고 소개했다. 흥국생명은 IBK기업은행을 세트스코어 3-0(25-12 25-14 25-18)으로 완파하고 챔피언결정전에 안착했다. 시청률은 경기 시작부터 1%를 넘기더니 흥국생명으로 승세가 기울어진 3세트 약 30분 가량 정점을 찍었다. 경기 내 3%이상 시청률 시간은 20여분으로 집계됐다. 흥국생명은 26일 정규리그 우승팀 GS칼텍스와 챔피언결정전 1차전을 갖는다. /뉴시스

여자배구 창단 희망 기업 등장... '7구단 시대' 열리나

"연고지는 수도권 희망" 알려져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신생팀 창단을 희망하는 기업이 등장했다. 금융권 A기업은 지난 23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창단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의향서 제출은 신생팀 창단의 공식적인 첫 단계다. 2011년 IBK기업은행이 6번째 구단으로 V리그에 뛰어든 이후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이 신생팀 창단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의향서 제출까지 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상위로 분류되는 A기업은 수도권 연고지를 희망하며 2021~2022시즌부터 리그에 뛰어올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창단의향서가 접수되면서 기존 여자부 6개 구단은 치주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가입 절차, 선수 수급 및 배구발전 기금 규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가입비는 2억원이다. A기업의 최종 가입 여부는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실무진 회의가 필요하겠지만 A기업이 창단 승인을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차기 시즌 바로 리그에 뛰어든다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한 배구 관계자는 "빨리 일을 진행한다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당장 4월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열리고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도 진행된다. 그 전에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